

한 해 1000억 투입 '준공영제' 평가 또 하락

제주도, 2022 버스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도내 버스업체 7곳 평균점수 81.05점으로 집계 지난해 84.90점보다 낮아... 매해 4점가량 하락

제주도가 한 해 1000억 원 가까운 세금을 들이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도내 버스 업체의 경영상태와 서비스 품질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9일 공개한 '2022년 버스 준공영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보면, 도내 버스업체 7곳의 평균 점수는 81.05점으로 나타났다.

도내 버스 업체의 경영·서비스 평가는 매해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평균 점수는 84.90점, 2020년 평균 88.84점으로, 매해 평균 점수가 4점가량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 결과를 업체별로 보면 ▷제주여객 85.95 ▷극동여객 84.72 ▷금남여객 81.66 ▷동진여객 81.64 ▷삼화여객 78.40 ▷삼영교통 77.56 ▷서귀포운수 77.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7개 업체 중 서귀포운수를 제외한 모든 업체의 점수가 떨어졌다. 삼화여객은 지난해 89.44점에서 올해 78.40점으로 11.04점 하락하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2021년 평가 점수를 업체별로 보면 ▷극동여객 91.41 ▷삼화여객 89.44 ▷제주여객 88.78 ▷삼영교통

86.56 ▷동진여객 86.07 ▷금남여객 83.09 ▷서귀포운수 68.98 등의 순이었다.

제주도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점수가 급격하게 떨어진 원인으로 유가 상승이 지목됐다. 평가 항목 중 '평균 유가'가 포함됐는데 기름 값이 크게 올라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서비스 평가 부문에서는 올해와 지난해가 대체로 비슷한 점수가 나왔으나, 유가가 포함된 경영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급락했다는 것이다.

또 올해 평가항목이 지난해 29개 항목에서 4개 항목이 추가되면서, 일부 점수가 하락한 것도 평균점수 하락의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준공영제 버스업체 7개사, 공영버스 2개, 관광지 순환버스 1개사 총 10개사 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24개의 경영 및 서

비스 평가항목과 9개의 가·감점 항목으로 진행됐다. 경영 분야에서는 준공영제 업체의 경영 관리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원가관리, 경영관리, 재무건전성을 평가했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운행관리, 차량관리, 안전관리, 친절관리, 이용 편의 관리 등의 항목을 점검했다.

한편 버스준공영제에 소요된 운수업체 보조금은 2020년 1002억, 2021년 1124억, 2022년 1204억원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별 성과이윤을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는 적정이윤의 30%를 적용했으나 2021년도부터는 성과이윤 비율을 매년 2%씩 증가시켰으며, 올해는 34%를 적용했다. 제주도는 오는 2025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미달 사태 내년 3월 배치 계획 75명 모집에 36명 지원 그쳐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3월 배치될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채용을 마감한 결과 미달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학비노조)에 따르면 지난 12~16일 진행된 2023년 제1회 도교육청 교육공무직 공개 채용을 통해 조리실무사 75명(일반 70명, 고졸 2명, 저소득층 3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36명(일반 35명, 저소득층 1명)에 그쳤다. 학비노조는 성명을 내고 "인원 미달로 인한 조리실무사의 업무 과중과 급식실 혼란이 우려된다"며 "최근 5년간 입사한 조리실무사가 1년 내 중도 퇴

사한 비율은 18~25% 수준이다. 각종 근골격계 질환과 폐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근무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이번에 14개 직종에 걸쳐 220명의 교육공무직을 대거 채용한다 조리실무사의 경우 올해 기준 40명대에서 2배 정도 많은 정원을 늘린 점도 미달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며 "내년 하반기 급식 종사자 정기 채용 때까지 기간제 인력을 활용해 운영하도록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제도' 운영 도, 열린대학 등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시동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에는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열린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제주도는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례개정, 예산확보 등정을 거쳐 내년 1월 홍보 및 준비기간을 운영하고 2월부터 신청접수, 4월부터 바

우처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급대상자는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구성원들이다. 도내 수급자 중 청년층을 우선발급대상자로 하며, 2500명에 대해 연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분부캠퍼스로 두고 명예학위제, 증장기 전문과정과 단기 수요 충족 과정이 아우러진 열린평생학습대학을 내년 운영한다. 강다혜기자

국토부 제2공항 공식입장 발표 연기

29일 발표 예정이었지만 검토 이유로 무산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 협의 착수 여부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특히 그간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한 입장을 연내 발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왔지만, 올해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이 30일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국토부가 연내 입장을 내놓을지 도민 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당초 국토부는 이날 제주 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과와 사업 재개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내부 검토가 장기화 되고 있고, 아직 연내 보완 가능 여부를 결정내지 못했다.

국토부는 연내 발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연내 발표와 관련해서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정확한 것은 내일 알 수 있다. 내일 (발표가) 이뤄지면 연내 발표하는

것이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에도 (검토가)지속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최근 도내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핵무기 전략 도서화' 논란 등으로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사회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오 지사는 지난 28일 국회를 찾아 국토부에 대해 "북핵특위 보고서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 결과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제주지역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 '핵무기 전략 도서화' 논란 등과 관련해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 공항으로 건설·운영될 계획"이라며 "국토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지역에 수차례 설명한 바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공문으로도 밝힌 바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태윤기자



입장 발표하는 '비밀 경찰' 의혹 증식당 지배인 29일 오후 중국인 해외에서 운영하는 '비밀 경찰'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서울의 한 증식당에서 식당 지배인 왕해군 씨가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운행 늘린다 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는 제4차(2022~202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 29일 확정,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도입 확대,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계획 추진을 위해 2026년까지 총 1807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계획에 따라 도는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6년까지 국가계획의 도 지역 목표치인 41%보다 22% 높은 63%(245대)를 목표로 삼았고, 마을버스의 경우 국가계획 목표치인 49%(10대)를 도입 목표로 총 24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법정대수(보행상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 100% 확보를 목표로 했으며, 이동 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바우처택시는 200대까지 도입을 확대하고,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확대를 포함해 총 589억 원을 투자한다. 강다혜기자

재제주시성산읍연합청년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희망찬 계묘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회원님 댁내에 두루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2023년도 재제주시성산읍연합청년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3년 1월 14일(토요일)

- 1부 - 18:00 정기총회
- 2부 - 18:30 회장 이·취임식

*내빈께서는 2부 행사에 참석바랍니다

장소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1층)

- 이임회장 (제20대) 강수철
- 취임회장 (제21대) 양치호

· 연락처 : 홍무이사 오경현(010-8697-0800)

재제주시성산읍연합청년회 회장 강수철

책력읽기

○ 교육시작: 2023년 1월 6일(금)~
* 매주 금요일 주1회, 총12주 수업

○ 모집인원: 10명 내외

○ 수업 내용:
· 책력읽기: 2023년 南山민력 중심
* 강의 교재는 소학당비지, 단 책력(남산당)은 시중 서점서 개별 구입 요함.

○ 수 강 료: 월 80,000원(월1기준) * 교재비 별도

○ 장 소: 소학당한문학원(제주시 서사로 108, 2층)

○ 접수상담: [전화접수·신청가능]
☎ 064-757-4561, H.P 010-3077-4561

요일	시 간	수업과목	수업 시작일
금	오후 4시 ~ 5시 30분	「책력 읽기」	1월 6일
(매주)		※2023년 南山민력 중심	

※「책력읽기」 종강 후 「사주명리(기초)」, 「9중나경운용, 번으로 이어짐」

講師/海山 李龍林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석사)
- 해산역학원 · 소학당한문학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한문」, 「생활역학」 강사
- 소학당 도민대상(무료)사서삼경읽기 강사(2021~현재)
- ※매주 수요일 저녁 7:00~8:20 「서경」 수업 중
- 제주형도민대상(무료) 사서삼경읽기 재능기부 강사역임(2010~2020)
- ※강독한 과목: 「명심보감」, 「대학」, 「맹자」, 「중용」, 「주역」, 「2독」, 「서경」, 「반론」
- 제주형고문영한문학원 한문(동양철학)강사역임
- 탐라선비문화학교 전임 강사역임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생활역학」강사역임, 「경서강독」강사역임

제주시교육청 등록 177호
海山易學院 · 소학당한문학원

5년 "우수훈련기관 지정"

전액 무료 내선전기실무 및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

대 상 실업자/재직자/영세사업자
졸업예정자/휴학생 등 대부분 가능

교육기간 2022년 12월 28일 ~ 2023년 7월 24일

교육시간 09:00 ~ 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 내선공사 및 소방 통신설비

문 의 064-749-3434

취업처 다수확보 전액무료(90% 취업률 달성)
전과정 기능사실기 합격률 95% 달성

주식회사 제원직업전문학교
jejuwon.com (신제주 은남동 버스정류소 앞)
T. 064-749-3434

*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토 지 구합니다

· 제 주 시 ·

구좌읍 조천읍

조 건

- ① 전원주택용 부지
- ② 허가득한 사업부지
- ③ 계획관리지역

베네건축 베네하우스

문의: ☎ 064-723-1105